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반 정 호\*

## I. 머리말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00명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3).

제도 시행 이후, 2001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로 인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는 커녕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02년 1.11%에서 2003년 0.79%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2004년에는 0.97%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노동뉴스, 2005년 9월 23일자 보도 참고). 우리나라 한 대기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상승률은 0.0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구는 165만명(전체 인구의 3.44%)으로 2000년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jhban@kli.re.kr).

이후 69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출현율도 1990년 2.23%에서 2000년 3.09%로 증가하였다.<sup>1)</sup>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인권향상과 의료기술 및 재활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만족의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보다 상위의 정책적 목표를 지향해야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탐색해 보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등록장애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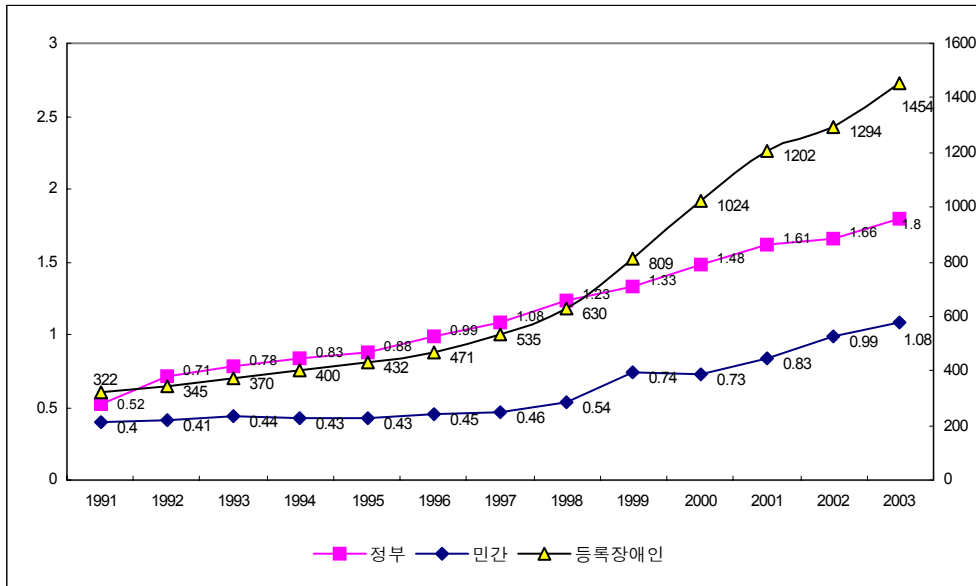
최근 노동부가 보고한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에 따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총 6,079명으로 고용률 2.04%(현원기준은 2.0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2003년 말 고용률 1.08%)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아울러 2% 미달기관에 대한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충원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모든 기관의 의무달성을 추진하고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노동부, 2004a).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증가추세와 적용제외 대상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간사업체의 경우 2003년 말 기준 1.08%의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7년 0.46%에서 2003년 1.0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 고용률(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체의 낮은 고용률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의 양적증가와 함께 그들의 취업욕구에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장애인 출현율 및 후천적 장애발생률 증가,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에 의한 장애인 증가로 인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있지만 노동을 수요하는 사업주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제약 속에서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노동부, 2004b). 또한 실제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고용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직종과 산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직장의 부적응과 잦은 이직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민간부문에서의 낮은 의무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등록장애인 추이(1991~2003)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현황』, 각년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각년도. 이효성(2005)에서 재인용.

### III.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고용형태<sup>2)</sup>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의 취업장애

2)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 부분은 노동부(2002)와 보건복지부(2001)를 많이 이용하였다.

인 실태조사 정도이다. 두 조사는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과 근로, 임금 등의 취업활동을 파악하는 전국조사로써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두 조사는 이미 2000년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5년이 경과한 현재 2005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부 통계수치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2000년 말 현재 장애인은 약 145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들 중 경제활동 장애인구는 약 63만여 명(경제활동참가율 47.8%)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0년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0.7%과 취업률 58.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장애인 실업자는 18만 명,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인 27.4%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4.4%(구직기간 4주 기준)에 비해 약 6.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표 1〉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전 체	장애인	경 제 활 동 인 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	1,449	1,331	636(100.0)	456(71.6)	181(28.4)	695
전 체	46,136	36,186	22,134(100.0)	21,156(95.6)	979( 4.4)	14,05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장애인 중 단순노무직(23.6%)과 자영업 종사비율(40.2%)이 높으며,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47.5%에 불과하여 그 고용의 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54.1%는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중(37.5%)보다 16.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업한 장애인은 25.0%로 전체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보다 2.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그 비중이 증가한 임시직의 경우, 장애인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전체 취업자의 비중인 21.4%보다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용직의 경우는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15.8%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볼 때 4.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했을 때, 장애인의 고용은 임금근로자로 채용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과 함께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장애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
장애인	40.2	3.4	10.5	25.0	5.2	15.8
전 체	21.4	7.0	9.1	29.7	21.4	1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노동부(2002)에서 재인용.

## 2.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 DB를 활용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인·구직 및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시장의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재활수행기관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의 산업 및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 1/4분기에 절반 이상의 취업 장애인이 광업 및 제조업(55.1%)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4.3%), 사업서비스업(11.1%), 도·소매업(6.0%) 순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5년 1/4분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장애인 중 광업 및 제조업에 취업한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취업비중(19.2%)에 비해 매우 높아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장애인 취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경우,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전체 취업자(6.2%)에 비해 높았고, 사업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역시 전체 취업자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산업의 총점유율이 80.5%로 전체 인구의 상위 3개 업종 총점유율인 45.5%보다 무려 35.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인의 취업이 일부 산업에 매우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직종별로 취업장애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술 및 기능직으로의 취업이 전체 취업자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이 37.3%, 경영 및 사무직이 8.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취업장애인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10.8%)에 비해 25.6%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기술 및 기능직의 경우 역시 전체 취업자(22.0%)에 비해 18.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취업자의 직종과

〈표 3〉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직종별 분포(2003~2005)

(단위 : 명, 천명, %)

		2003. 1/4	2004. 1/4	2005. 1/4	전체인구(천명)	
총취업자		1,351(100)	934(100)	1,987(100)	22,247(100)	
산업별	농림어업	4( 0.3)	6( 0.6)	4( 0.2)	1,525( 6.5)	
	광업제조업	957(70.8)	573(61.3)	1,094(55.1)	4,278(19.2)	
	전기가스	1( 0.1)	1( 0.1)	6( 0.3)	71( 0.3)	
	건설	5( 0.4)	15( 1.6)	7( 0.4)	1,692( 7.6)	
	도소매업	66( 4.9)	62( 6.6)	120( 6.0)	3,777(17.0)	
	숙박음식	13( 2.7)	22( 2.4)	44( 2.2)	2,058( 9.3)	
	운수창고	37( 0.9)	45( 4.8)	68( 3.4)	1,139( 5.1)	
	통신업	12( 0.9)	1( 0.1)	9( 0.5)	263( 1.2)	
	금융보험	10( 0.7)	5( 0.5)	11( 0.6)	729( 3.3)	
	부동산	6( 0.4)	1( 0.1)	4( 0.2)	467( 2.1)	
	사업서비스	90( 6.7)	93(10.0)	220(11.1)	1,498( 6.7)	
	공공행정	2( 0.1)	9( 1.0)	34( 1.7)	763( 3.4)	
	교육	2( 0.1)	5( 0.5)	7( 0.4)	1,501( 6.7)	
	보건복지	21( 1.6)	5( 0.5)	70( 3.5)	628( 2.8)	
	오락문화	3( 0.2)	3( 0.3)	5( 0.3)	483( 2.2)	
	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122( 9.0)	88( 9.4)	284(14.3)	1,376( 6.2)	
	직종별	기술기능	526(38.9)	425(45.5)	809(40.7)	4,880(22.0)
		경영사무	80( 5.9)	66( 7.1)	177( 8.9)	3,214(14.4)
		교육법률	1( 0.1)	3( 0.3)	11( 0.6)	-
의료복지		10( 0.7)	9( 1.0)	58( 2.9)	-	
문화예술		3( 0.2)	12( 1.3)	18( 0.9)	-	
서비스		31( 2.3)	42( 4.5)	88( 4.4)	2,952(13.3)	
영업판매		51( 3.8)	60( 6.4)	84( 4.2)	2,675(12.0)	
농림어업		7( 0.5)	5( 0.5)	1( 0.1)	1,437( 6.5)	
단순노무		642(47.5)	312(33.4)	741(37.3)	2,403(10.8)	

주 : 전체인구의 산업별·직종별 근로자의 분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년 1/4분기 자료를 활용하였음. 직종의 경우 장애인고용동향의 범주와 차이가 있어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직종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분기별 자료, 통계청, KOSIS.

직접비교가 가능한 서비스, 영업판매, 농림어업의 경우는 취업장애인의 그 비중이 전체 취업자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자의 78% 정도가 기술(능)직 혹은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32.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으로 장애인의 취업의 질이 전체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4〉는 장애인 취업자의 기업규모별·임금수준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기업규모별 장애인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30인 미만의 영세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비중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3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0인 이하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55.9%)과 비교해 보면 약간 낮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 취업장애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의 9.4%에서 2005년 1/4분기에는 13.6%로 그 비중이 다소 증가되고는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전체 근로자의 비중(12.2%)과 비교하면 취업장애인의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중(2003년 1/4분기 기준 8.9%)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대기업으로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5인 이상 사업체의 2004년 월평균 급여는 225만원이고,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193만원 수준이다.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장애인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범주형으로 제시되어 있어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5년 1/4분기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취업장애인의 비중이 전체 취업장애인의 3%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기초로 장애인 취업자와 전체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2003년 기준 7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있는 취업장애인의 비중은 28.1%로 전체 취업자에서의 비중(4.5%)보다 6배 이상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있는 취업장애인의 비중 역시 전체 취업자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15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대에서 장애인 취업자와 전체 취업자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취업자 중 1.0%만 이 임금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의 경우 약 59.5%가 이 임금대에 분포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32%(2005년 1/4분기 기준)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약 78% 정도는 최저생계비(2005년 4인 가구 기준 1,136천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취업이 저임금근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의 취업의 질이 전체 취업자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나타낸다.

취업장애인의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장애인 모두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은 여성장애인보다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대까지 낮게 나타나는데, 2005년 1/4분기에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3.8%인데 비해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8.9%로 약 5%포인트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높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비율로 산출되는 구인배율은 취업의 용이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남성의 구인배율은 2002년 1/4분기 이후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의 구인배율은 2004 1/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2004년 3/4분기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남성장애인의 구인배율은 여성장애인의 구인배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남성장애인의 취업이 여

〈표 4〉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직종별 분포(2002~2005)

(단위 : 명, %)

		2002. 1/4	2003. 1/4	2004. 1/4	2005. 1/4	전체인구(천명)
총취업자		1,726( 100)	1,351( 100)	934( 100)	1,987( 100)	14,729( 100)
구	5인 미만	106( 6.1)	120( 8.9)	78( 8.4)	199(10.0)	4,837(32.8)
	5~9인	194(11.2)	146(10.8)	81( 8.7)	237(11.9)	1,836(12.5)
	10~29인	591(34.2)	419(31.0)	294(31.5)	631(31.8)	1,555(10.6)
	30~99인	542(31.4)	415(30.7)	233(24.9)	527(26.5)	3,293(22.3)
모	100~299인	131( 7.6)	131( 9.7)	87( 9.3)	123( 6.2)	1,412( 9.6)
	300~499인	80( 4.6)	57( 4.2)	40( 4.3)	117( 5.9)	513( 3.5)
	500~999인	50( 2.9)	47( 3.5)	64( 6.9)	82( 4.1)	508( 3.4)
	1,000인 이상	32( 1.9)	16( 1.2)	57( 6.1)	71( 3.6)	775( 5.3)
별	300인 미만	1,564(90.6)	1,231(91.1)	773(82.8)	1,717(86.4)	12,933(87.8)
	300인 이상	162( 9.4)	120( 8.9)	161(17.2)	270(13.6)	1,796(12.2)
	70만원 미만	666(38.6)	379(28.1)	182(19.5)	630(31.7)	286( 4.5)
수	100만원 미만	903(52.3)	786(58.2)	509(54.5)	917(46.1)	832(13.0)
	150만원 미만	144( 8.3)	173(12.8)	227(24.3)	397(20.0)	1,525(23.9)
	150만원 이상	13( 0.8)	13( 1.0)	16( 1.7)	43( 2.2)	3,798(59.5)

주 : 전체 인구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분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수준별 근로자 분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3년 자료임. 사업체 규모의 범주는 10~19인, 20~99인으로 「장애인고용동향」의 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임금구조기본통계」에서 전체 근로자는 6,380천명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분기별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3.

〈표 5〉 장애인 취업자의 성별 취업률과 구인배율(2002~2005)

(단위 : 명, %)

	2002. 1/4	2003. 1/4	2004. 1/4	2005. 1/4
남성구직자a	2,630( 0.8)	2,573( 0.18)	2,909(0.16)	2,778( - )
여성구직자a	927( 0.19)	988( 0.34)	1,086(0.31)	799( - )
남성취업자b	1,232(46.84)	935(36.34)	605(20.8)	1,203(13.75)
여성취업자b	494(53.29)	416(42.11)	329(30.29)	784(18.94)

주 : a ( )안은 구인배수, 구인배수=구인인원/구직인원×100

b ( )안은 취업률, 취업률=취업인원/구직인원×1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분기별 자료.

성장애인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남성장애인의 낮은 취업률로 다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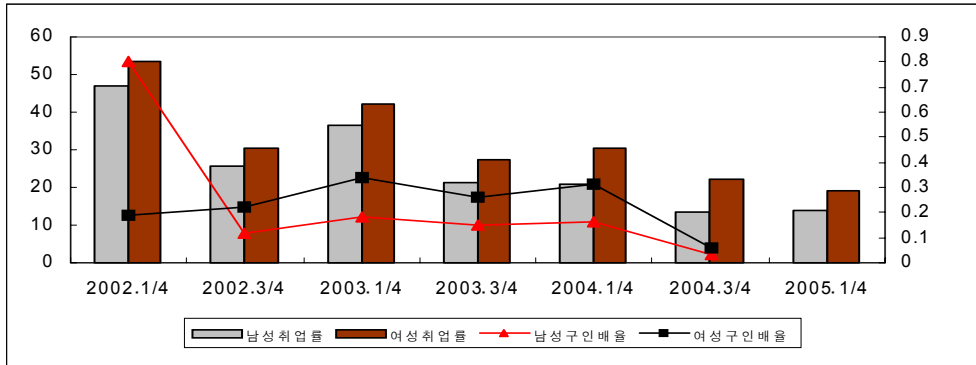
장애특성별 취업장애인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의 취업률이 경증장애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3) 또한 장애유형별 취업자 비중은 2005년 1/4분기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전체 취업자의 40.9%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19.2%), 정신지체장애인(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3) 본 연구는 중증장애를 1급에서 3급 장애를 중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의 취업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률과 구인배율(2002~2005)

(단위 : %)



주: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료에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인배율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분기별 자료.

이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장애인의 연령별·학력수준별 분포의 경우, 20~30대의 장애인이 취업률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취업비중이 11% 정도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22,247천명) 중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취업자 비중(취업자수 : 5,510천명, 24.7%)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특히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장애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5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중고령 장애인의 고용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학력수준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학력의 장애인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고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 비중(67.4%)에 비해 낮은 것으로 장애인의 저학력 취업현상을 엿볼 수 있다. 2005년 1/4분기만을 보더라도 고졸 이하 취업장애인의 비중은 81.2%인데 비해 전문대졸 이하의 취업장애인은 전체 취업장애인의 7.8%,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취업장애인은 10.0%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전체 인구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 취업자의 비중이 22.4%(전문대학 포함 32.3%)로 장애인 취업자에 비해 14.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고학력 장애인의 취업 역시 전체 인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취업이 학력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낮은 교육성취도<sup>4)</sup> 및 열악한 장애인 교육제도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 하

4)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보다 열악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절반 이상(53.3%)이 초졸 이하의 저학력 장애인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5%로 전체 인구의 25.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겠다.

〈표 6〉 장애인 장애특성 및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률과 구성비(2002~2005)

(단위 : 명, %)

		2002. 1/4	2003. 1/4	2004. 1/4	2005. 1/4	전체인구(천명)
총취업자		1,726(100)	1,351(100)	934(100)	1,987(100)	22,247(100)
장애 정도 <sup>a</sup>	중증장애	1,134(47.3)	857(36.5)	597(22.2)	1,369(15.1)	-
	경증장애	592(45.7)	494(40.7)	337(25.8)	618(16.1)	-
장애 유 형 별	지체장애	894(51.8)	682(50.5)	478(51.2)	813(40.9)	-
	뇌병변장애	69( 4.0)	51( 3.8)	42( 4.5)	97( 4.9)	-
	시각장애	65( 3.8)	54( 4.0)	46( 4.9)	138( 6.9)	-
	청각장애	289(16.7)	261(19.3)	189(20.2)	381(19.2)	-
	언어장애	76( 4.4)	49( 3.6)	22( 2.4)	53( 2.7)	-
	정신지체	282(16.3)	202(15.0)	113(12.1)	361(18.2)	-
	정신장애	43( 2.5)	41( 3.0)	31( 3.3)	102( 5.1)	-
	발달장애	0( 0.0)	1( 0.1)	0( 0.0)	4( 0.2)	-
	신장장애	5( 0.3)	9( 0.7)	2( 0.2)	17( 0.9)	-
	심장장애	0( 0.0)	1( 0.1)	2( 0.2)	2( 0.1)	-
	기타	3( 0.2)	0( 0.0)	9( 1.0)	19( 1.0)	-
연 령 별	19세 이하	44( 2.5)	52( 3.8)	33( 3.5)	73( 3.7)	262( 1.2)
	20~29세	635(36.8)	499(36.9)	324(34.7)	811(40.8)	4,245(19.1)
	30~39세	501(29.0)	395(29.2)	304(32.5)	542(27.3)	6,072(27.3)
	40~49세	352(20.4)	257(19.0)	185(19.8)	346(17.4)	6,158(27.7)
	50~59세	154( 8.9)	115( 8.5)	74( 7.9)	158( 8.0)	3,392(15.2)
60세 이상	40( 2.3)	33( 2.4)	14( 1.5)	57( 2.9)	2,118( 9.5)	
학 력 별	초졸이하	252(14.6)	146(10.8)	82( 8.8)	178( 9.0)	2,793(12.6)
	중졸이하	434(25.1)	236(17.5)	156(16.7)	240(12.1)	2,584(11.6)
	고졸이하	824(47.7)	749(55.4)	496(53.1)	1,195(60.1)	9,679(43.5)
	전문대졸이하	125( 7.2)	97( 7.2)	97(10.4)	154( 7.8)	2,208( 9.9)
	대학이상	85( 4.9)	85( 6.3)	100(10.7)	199(10.0)	4,983(22.4)
기타	6( 0.3)	2( 0.1)	3( 0.3)	21( 1.1)	-	

주 : a ( )안은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 나머지는 구성비를 나타냄. 전체 인구의 연령별·학력별 취업자 분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년 1/4분기 자료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분기별 자료, 통계청, KOSIS.

#### IV.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노동시장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증대 및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는 장애범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증가했으며, 일부에서는 장애인 인구비율(전체 인구의 3.4%)에 맞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고용의 총량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총량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그 실효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의무고용 준수,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직무배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sup>5)</sup>,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등의 미시적인 차원의 고용정책을 통해 현재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노동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2002.  
 \_\_\_\_\_,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2004a.  
 \_\_\_\_\_,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4b.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1.  
 이효성, 「정부부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연구」, 『장애인고용』, 통권 제55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미고용 고용의무사업체 직무분석 및 고용방안 연구』,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2002.

5)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2003)이 장애인 실태조사(200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 및 직무환경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체의 설비개선, 근무시간 조정, 통근수단 지원 및 직무내용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2003)의 「미고용 고용의무사업체 직무분석 및 고용방안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